

推定되었으나 그理由로서는...兩石材가 共히 花崗石이나 그石質이 異質이라는點 ① 其中 一은 出土品으로서 發見場所가 同一치 않은點 ② 各部의 彫刻手法에서 光背가 一層 優作이며 同代作品이 아니라는點과 兩者를 一雙으로 假定하고 볼때 均衡이 맞지 않는다는點 ③ 等이다.

註

- ① 現存 佛像의 大概가 그 光背와 同一石質임
- ② 或時 光背가 倒置되고 埋沒되었더라도 佛像과 同一한 場所일것이 며 더욱이 그렇지않고 完品을 移置하였다면 光背를 放置하고 佛像만 安置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點
- ③ 光背는 羅代의 優作인데 對하여 坐像은 時代가 降下된것으로 推定되며 兩者의 實測値에서 高·幅 等の 均衡이 맞지않음

三、其他遺物

以外的 遺物로 前庭에 花崗石製의 蓮花臺石 一座와 七星閣後便에 磨滅이 甚한 坐佛이 一軀 遺存한다. 臺石은 高二〇cm 徑七〇cm 로 八角(一邊長二一·五cm)이며 그 周邊(徑五〇cm)에 十六瓣의 覆蓮을 陽刻하였는데 年代는 麗代로 推定되었다.

坐像은 約二〇年前 山麓部落에서 出土된 것을 移安한 것이라 한다. (洞人談話) 舟形光背(高九〇cm 廣幅五六cm)面에 浮彫한 바 結跏趺座하여 觸地降磨印을 結하고 左手에는 持物이 있으나 極甚한 風磨로 法衣等도 刻明치 않다. 實測値는 高七〇cm 肩幅三八cm 胸幅一九cm 膝幅四八cm 로서 年代는 麗代中期로 推定되었다.

青磁素文方臺의 新例와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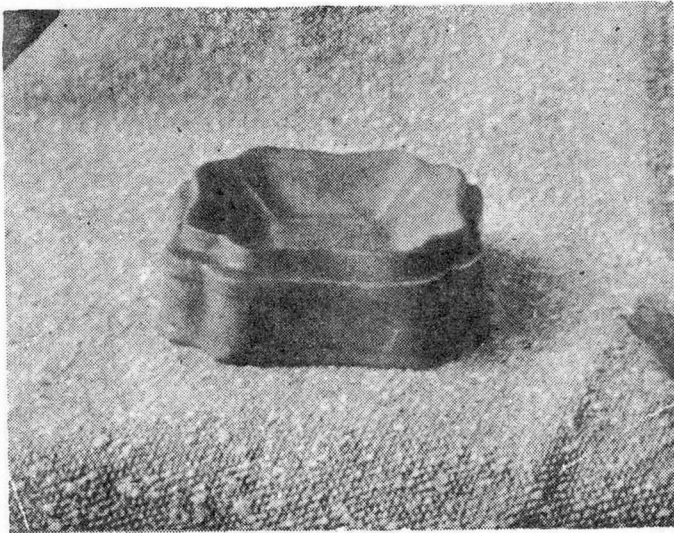
金正基

英國에서 韓國古美術品展示會가 열리고 있던 어느날 V.&A 博物館東洋課長의 好意와 앞선으로 우리들은 옥스포드大學附屬博物館을 見學할 機會를 가졌다. 이 博物館은 新築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그때에는 아직

開館하지 않고 所藏品을 整理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들은 未整理의 藏書에서 몇點의 우리나라 陶磁器를 찾아내서 撮影하며 觀察하였던 것이다. 이들 遺物 가운데서 우리들의 興味를 끈것이 지금 말하려 하는 青磁素文方臺와 青磁象嵌菊花文片口碗 青花白磁辰砂花草文壺外에 黑釉접시가 얼마간 있었다.

青磁素文方臺는 그 형태 및 質이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青磁素文方臺 ① 와 거의 같으며 그 差異點이라고는 大學의 것이 그 크기가 적고 臺 側面에 眼象이 새겨져 있는 점이다. 즉 크기는 實測을 하지 않았기에 正確한 數字를 밝힐 수 없으나 臺의 一邊이 約一〇cm 높이 約五cm 程度였다. 그 형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隅入形이다. 上部는 一段 좁아져 段을 이루어 上面部로 되며 上面은 역시 中心部를 向하여 傾斜지어 낮아지

면서 臺의 平面과 같은 모양의 平坦한 中央部에 達한다. 臺의 側面에는 上椽과 下端에 좁은 턱이 있어 四側面에는 各各한 개씩의 眼象이 새겨져 있다. 眼象의 모양은 簡素하면서 端正한 所謂 合掌式의 眼象으로 兩側으로 내려가는 線은 심히 彎曲한 裝飾化된 形式이다. 方臺의 陶質은 灰白色 胎土 위에 짙은 翡色 釉藥이 덮혀 있어 釉裂



이 없는 完好한 것이고 臺의 內部는 空洞으로 되어 있다.

생각컨대 이 方臺 역시 國立博物館의 方臺와 거의 같은 時代 즉 十一、二世紀의 것으로 產出地方 역시 같은 곳이 아닐가 생각된다. 이 方臺의 用途에 關해서 考察해 본다면 우선 지금까지 같은 종류의 유물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方臺로는 이미 말한 두개의 方臺外에 高麗 仁宗王 長陵에서 출토하였다고 전하는 方臺가 있다. ② 이 가운데 長陵 出土의 方臺 크기는 臺의 一邊約 一五・三cm 높이約 七・二cm이며 國立博物館의 方臺와 비슷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三個의 方臺는 各各 크기는 다르다고 하였으나 그 특징적인 모양이 꼭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것으로 이 形態는 一定한 用途에 要求된 機能을 滿足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틀림 없을 것이다.

처음이 方臺가 發見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一種의 사발이라고 생각되었으나 ① 일찌기 그 잘못이 訂正되었다. 지금 그 用途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일종의 臺라고 생각되어 方臺(方形臺)라고 불리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大學所藏의 方臺側面에 새겨진 眼象으로 말미암아 確證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 以上으로 方臺의 用途를 밝히는 具體的인 資料를 發見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들 三例를 자세히 觀察하므로서 어떤 示陵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即 이들 方臺에 공통되는 형태에서 裝飾的인 部分과 機能的인 要求로 서 된 部分을 찾아야 하겠다. 첫째 이 方臺의 四側面이 元來의 計劃으로서는 편편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은 國立博物館과 長陵의 臺는 그 側面의 中央部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들어 마치 四瓣花形으로 보이거나 大學의 方臺側面에 眼象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 部分이 편편한 것이 合理的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안쪽으로 휘어진 것은 胎土가 얇고 比較的 넓기 때문에 燒成時 胎土의 收縮으로 일어나는 偶然的 형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三個의 方臺가 모두 그 上部에서 一段 좁아진 것이 있어 마치 거기에 뚜껑이나 혹은 다른 器物을 꼭 맞추어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셋째로 臺上面이 다 같이 中央部에 갈수록 傾斜되어 낮아지면 서 접시 안 바닥처럼 되고 中央에서는 方形의 平坦部가 있어 거기에 바

다 이 편편한 어떤 小器物을 安定시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의 형태가 이 方臺에 要求되는 機能의인 형태라고 생각되며 方臺의 네모가 쌍사귀처럼 된 것과 臺의 上椽과 下端의 턱은 단순한 장식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말한 세가지의 機能의인 형태에서 類推하여 어떤 用途가 머릿속에 그려지나 그것이 固定된 생각에까지 達하지는 못한다. 方臺의 크기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을 수 있고 또 王陵에서 출토된 바 있다는 條件을 참작하여 諸賢의 教唆를 바라며 今後의 새로운 資料를 期待하는 바다.

註

- ① 現在 歐羅巴展示中
- ② 역시 國立博物館所藏品임
- ③ 古蹟圖譜 七卷 所載

奉德寺梵鐘小考

洪 思 俊

韓國의 梵鐘으로 가장 오래된것은 江原道 上院寺鐘과 다음에 奉德寺鐘을 들 수 있다. 그 中 奉德寺鐘은 慶州를 訪問하는 觀客에게 없지 못할 新羅文化의 特徵的存在로서 알려져 있거니와 鐘表面의 各部 文樣을 爲始하여 아직까지 注意되지 않았던 몇가지 點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를 적어 보고자 한다.

이 梵鐘의 尺數는 音管 上端에서 鐘口下八菱尖端까지가 約 一一・五尺이고 下端에서 五・八一尺 上部에 鐘表에 橫으로 缺線이 둘러 있다. 大體 이 缺은 上下의 鐘體를 따로 만들어서 連續시킨 것이나 鎔範의 連續線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鎔解銅을 한꺼번에 全量을 注入치 않고 二次에 걸쳐 注入했던 關係로밖에 볼 수 없다. 筆者는 생각하건대 鎔範의 接續線이 鐘表面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鑄物은 二次에 걸쳐서 鎔液을 注入한다면 그 前後時間의 差異가 있음으로써 接續線이 弱하다는